DBpia

한국 고대의 질병관과 불교적 치유 방식

Viewpoints of Diseases and Buddhist Treatment Methods in Ancient Korea

저자 (Authors)
김수연
Kim, Soo-Youn

출처 (Source)
한국고대사연구 , (102), 2021.6, 75-114 (40 pages)
The Journal of Korean Ancient History , (102), 2021.6, 75-114 (40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고대사학회
Society for Korean Ancient Histor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0573719

APA Style
김수연 (2021). 한국 고대의 질병관과 불교적 치유 방식. 한국고대사연구, (102), 75-114.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8/18 12:59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https ://doi.org/10.37331/JKAH.2021.06.102.75

한국 고대의 질병관과 불교적 치유 방식

김수연*

Ⅰ. 머리말
Ⅱ. 한국 고대의 질병관과 치유론
 1. 기운의 부조화와 심리적 원인
 2. 신의 징벌 및 원한 등 외부 원인
Ⅲ. 주술적 치료의 전개
 1. 주술을 활용한 病因 제거
 2. 의약과 치료에 보이는 주술적 요소
Ⅳ. 불교 경전에 의거한 치유
 1. 교설 내용에 근거한 치료
 2. 교설의 재해석 및 因緣談
Ⅴ. 맺음말

국문 초록

병의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한 고민은 그 사회의 의학 수준과 사유 체계를 반영한다. 따라서 질병관과 치유 방식을 살펴보는 것은 그 사회를 이해하는 창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 고대인의 질병관과 치유 방식을 통해 고대 사회를 이해해 보고자 하였다.

*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대표논저 : 2017「14세기 고려의 다라니신앙 경향과 그 성격 -『금강경』 권말수록 다라니를 중심으로-」『한국중세사연구』 49 ; 2019「고려시대 普濟寺(演福寺)의 佛事와 성격 변화」『이화사학연구』 59 ; 2021「고려시대 밀교 치유 문화의 양상과 특징」『의사학』 30-1.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8/18 12:59(KST)

여러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한국 고대의 질병관은 노환으로 인한 질병을 제외하고 크게 네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기운의 부조화로 인해 일어나는 질병이다. 기운의 구성이나 운행, 조화·부조화 양상 등에 의해 질병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심리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질병이다. 심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은 기운의 부조화와도 연결되는데, 마음이 흐트러지면 기운도 흐트러지기 때문이다. 마음과 기운을 바로잡고 걱정을 떨쳐버리는 것이 치료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세 번째는 하늘이나 신의 징벌로 질병이 나타나는 경우이다. 네 번째는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이다. 외부 요인은 원한, 귀신 등 다양하게 나타나며, 질병이 발생하게 된 외부 요인들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치료가 이루어졌다.

이상과 같이 질병관을 유형화한 위에 불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적 치료 방식들을 정리해 보았다. 원시 사회에서 주술사가 의사의 역할을 담당했던 전통이 이어져, 고대 사회에서도 의료 행위에 주술적 치료 방법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치병과 관련하여 모방주술을 행하거나 주문을 외우는 치료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주술적 치료를 담당했던 관료인 주금사도 운영되었다. 방위를 점쳐 환자에게 유리한 곳으로 자리를 옮겨 치료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둔갑도 활용되었다.

경전의 교설에 의지하여 『약사경』을 讀經하였다. 100명의 고승들이 모여 『인왕경』을 강설하는 백고좌회도 왕의 치병을 위해 개설되었고 度僧이 수반되기도 하였다. 수계도 치병 방법 가운데 하나였다. 경전에 질병 치료 방법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더라도, 교설 내용을 현실적으로 재해석하여 치병을 기원하기도 하였다.

흔히 종교적 치료 방법은 비과학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고대인들은 그들의 사유 체계 안에서 납득할 수 있는 질병 발생 원인을 찾았다. 그리고 그에 맞추어 나름의 합리적 근거를 가진 최선의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주제어 : 질병관, 치료, 독경, 백고좌회, 약사경, 인왕경

I. 머리말

질병은 인류와 함께 시작되었다. 桓雄은 지상으로 내려올 때 風伯, 雨師, 雲師를 거느리고 穀, 命, 病, 刑, 善惡 등 인간사 360여 가지 일을 맡아 인간 세상을 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8/18 12:59(KST)

스렸다고 한다.[1] 선사시대부터 병이 穀, 命, 刑, 善惡 등과 함께 다스려 져야 하는 중요 항목으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병이 자연의 풍요, 도덕적·윤리적 가치, 사회적 규범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2] 의학이 발달한 현대에는 질병을 자연과학과 연결해 설명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질병과 치유는 종교의 영역이었다. 皇帝와 帝堯의 전설에 등장하는 醫官의 이름이 '巫咸'과 '巫彭'이었다는 사실은 巫가 의료행위를 주관했음을 암시하며,[3] 질병 치유와 종교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질병의 발생 원인과 치유 방법은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의학 수준과 세계관, 사유 체계를 반영한다. 따라서 질병에 대한 이해와 치유 방식은 그 사회를 이해하는 창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 고대인의 질병관과 치유 방식을 통해 고대 사회를 이해해 보고자 하였다.

질병관은 고대인의 자연관, 세계관 및 사유 체계와 연결되는 만큼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다. 지금까지 고대의 질병관에 대한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4] 그러나 주술적 질병관과 합리적 질병관으로 크게 양분하여 살펴보아 세밀함에서 아쉬움이 있거나, 주술적 질병관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다른 질병관을 소략하게 다루는 등의 문제가 있다. 유형을 세분화한 경우에도, 질병관의 유형들에 대한 분류가 중첩되거나 논의의 층위가 다른 내용들을 병렬하는 등 깔끔한 정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고대의 치유 문화에 대한 연구도 적지 않다. 의학, 약학의 전래와 발전, 개별

1) 『三國遺事』 권1, 기이 제1, 古朝鮮(王儉朝鮮).

2) 李符永, 1981 「原始的 疾病觀의 象徵性 -주로 『三國遺事』와 『三國史記』를 中心으로-」 『한국과학사학회지』 3-1, p.154.

3) 金相範, 2014 「醫術과 呪術 -唐代 醫療知識의 확산과 禁巫措置」 『中國古中世史硏究』 31, p.378.

4) 李符永, 1981 앞의 논문 ; 장인성, 2000 「고대 한국인의 질병관과 의료」 『한국고대사연구』 20 ; 이혜영, 2004 「新羅人과 古代 中國人의 疾病觀 비교 연구」 『典農史論』 10 등.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8/18 12:59(KST)

질병에 대한 심층적 연구, 종교적 신앙의 확산과 그에 근거한 치료 사례까지 다양하게 연구되었다.[5] 그중에서 종교적 질병 치료에 관한 연구는 약사신앙과 주술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한정된 고대사 사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검토 사례들이 유사하다. 약사신앙과 주술을 제외한 다른 불교적 치유 방법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

이에 본고에서는 선학들의 연구 성과와 사료들을 바탕으로, 우선 고대의 질병관을 재정리해 보고자 한다. 질병관에 대한 정리가 선행되어야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 치유 방식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종교적 치유 방식을 주술적 치유와 불교 경전에 의거한 치료 사례로 나누어 검토해보겠다. 이러한 접근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신앙 방법을 바탕으로 불교사상의 관점에서 유형을 구분한 것이다. 불교 경전에 의거한 치료 방법도 경전의 교설 내용에서 직접 치료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경우와 치병 관련 교설은 없으나 치병에 활용되는 경우를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치유 방식의 사례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불교적 치유 방식이 어떤 논리에 의해 채택이 되어 어떠한 효과를 기대한 것인지를 정밀하게 탐구해 보고자 한다.

단, 신앙 방법과 치병 논리를 살필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치유 방식을 서술한 것을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따라서 단순히 '기도' 등으로 표현된 사례는 검토에서 제외하였음을 밝힌다. 아울러 치병을 위한 의례 개설도 다루게 될 것인데, 이는 다른 불교적 치유 방식과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講經이나 주문 염송을 하는 경우에도 의례 절차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의례 개설로 포괄될 수 있다. 그러나 치병을 위한 중심 행위가 무엇인지가 다르므로, 이를 모두 의례 개설 사례로 포함시킬 수는 없다. 이에 본고에서 다루는 치병 관련 의례는 역사서

5) 고대 질병 치료에 관한 연구 경향은 신동원, 2010「한국 전근대 의학사 연구 동향」『의사학』19-1 ; 김성수, 2020「한국 전근대의료사의 연구동향과 전망(2010~2019) -분야의 확장과 연구 방법의 다양화-」『의사학』29-2 참조.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8/18 12:59(KST)

에 의례 개설로 표현된 경우로 한정하고자 한다.

Ⅱ. 한국 고대의 질병관과 치유론

질병은 대체로 심각한 삶의 위기로 나타나며,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는 사회적, 공동체적 위기와 연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이해와 치료의 방편은 사회·문화적 의미를 지닌다.[6] 따라서 질병을 통해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치유 방법을 논하기 전에 질병을 어떻게 보았는지를 살피는 질병관을 먼저 고찰해야 할 것이다. 한국 고대사의 여러 사료들과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종합해 보면, 고대인들이 지녔던 질병관, 질병의 원인은 크게 다음의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7]

① 기운의 부조화
② 심리적 원인
③ 하늘이나 신의 징벌
④ 악귀나 원혼 등 외부 원인
⑤ 노화

이 가운데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은 ①, ②, ③, ④번이다. 이를 차례대로 살펴

6) 류성민, 2004「종교적 질병 치유의 사회·문화적 의미 -한국 종교의 치병 의례를 중심으로-」『종교연구』35, p.2.

7) 한국 고대의 질병관은 다음 논문들을 참고하여 유형을 분류하고 정리하였다. 金斗鍾, 1966『韓國醫學史』, 探求堂 ; 李符永, 1981 앞의 논문 ; 장인성, 2000 앞의 논문 ; 이혜영, 2004 앞의 논문 ; 류성민, 2004 앞의 논문 ; 박경안, 2006「고려인들의 다양한 금기와 질병을 대하는 태도」『역사와 현실』59.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8/18 12:59(KST)

보자.

1. 기운의 부조화와 심리적 원인

우선 첫 번째는 기운의 부조화이다. 헌덕왕대에 상대등 金忠恭(?~835)이 병에 걸렸다. 國醫에게 龍齒湯을 처방받고 21일간 휴가를 얻어 요양을 하고 있었다. 이때 祿眞이 찾아와 병에 대해 조언하기를,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 퇴근하여 찬바람과 이슬을 맞아 血氣가 조화를 잃어[傷榮衛之和] 몸이 불편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처방으로 약이나 침을 쓸 것이 아니라 이치에 맞는 말과 이야기를 통해 깨침을 얻으면 나을 것이라고 하였다.[8] 깨어진 조화를 돌리는 방법을 치료 대책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런데 김충공의 병은 처방약이 용치탕인 점에서, 현대의 질병명으로 이야기하면 부정맥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그 원인은 백관의 인사고과라고 하는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일 것이라고 한다.[9] 이에 의사 녹진은 사적인 감정에 따라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재에 맞춰 자리를 주라는 조언을 하고, 이렇게 하면 나라가 자연스럽게 돌아갈 것이니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담소하고 즐겨도 좋을 것이거늘 약을 먹으며 치료하려 하느냐고 이야기하였다. 기운의 부조화인 동시에 그 원인이 심리 상태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심리적 원인에 의한 질병은 마음을 편안히 하는 것, 스트레스 요소를 없애는 것 등이 치료 방법이 될 것이다.

신문왕대에 國老였던 憬興도 스트레스성 질환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일화가 전한다. 『삼국유사』「憬興遇聖」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흥이 병이 나서 한 달을 누워 지냈다. 이때 한 비구니가 찾아와서 『華嚴經』의 좋은 친구 이야기를 하면서 근심 때문에 병이 난 것이므로 즐겁게 웃으면 나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

8) 『三國史記』 권45, 열전 제5, 祿眞.

9) 이현숙, 2000 「신라 애장왕대 唐 의학서 『廣利方』의 도입과 그 의의(2)」 『東洋古典硏究』 14 ; 李昇炫, 2020 「金忠恭의 疾病과 龍齒湯」 『동국사학』 68 참조.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8/18 12:59(KST)

리고는 열한 가지 모습으로 변하면서 광대와 같은 춤을 추니, 경흥이 이를 보고 턱이 빠질 듯 웃은 후 병이 나았다고 한다. 이후 비구니는 南巷寺로 돌아갔는데 가지고 있던 지팡이가 十一面圓通像, 즉 십일면관음상 앞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다. 경흥이 병이 난 시점은 신문왕의 國老가 된 이후로 보인다. 경흥은 백제 유민 출신이자 당시 신라에서 주류가 아니었던 유식학승이었다. 신라 불교계 안에서의 입장 차이뿐 아니라 불교 교학의 측면에서도 대립이 있을 수 있었기에 신라 고승들과의 갈등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10] 이러한 배경에서 국로라는 중책을 맡은 후에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에 눌려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병에 걸렸고, 웃음으로 근심을 좇아버린 후에 병이 나은 것이다.

이와 유사한 내용이 고려 후기에 了圓이 찬술한 『法華靈驗傳』에도 수록되어 있다. 관세음보살의 신이한 행적을 보여주는 「普門品」의 영험담 가운데 하나로, 覺訓의 『海東高僧傳』 권5에서 가져온 내용이다. 전체적인 내용은 『삼국유사』와 동일하나 병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추가되어 있다.

A. 신라의 憬興國師가 서울 三郎寺에 있을 때 병이 들어 오랫동안 낫지 않았다. 하루는 한 비구니가 찾아와 국사를 뵙기 청하였다. 제자가 그를 국사께 인도하였더니 말하였다. "스님께서는 큰 법을 깨달으셨지만, 四大가 합하여 몸이 되었으니 어찌 병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병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모두 사대에서 생겨납니다. 첫 번째는 몸의 병[身病]이니 風病·黃病·痰病·熱病이 주가 되고, 두 번째는 마음의 병[心病]이니 실성하여 미치는 것[顚狂]과 정신이 흐리고 어지러운 것[昏亂]이 주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외부로부터 받는 병[客病]이니 칼이나 막대기로 찍히고 다치거나 움직임이 지나쳐 피로함이 위주가 되고, 네 번째는 서로 함께 존재하므로 생기는 병[俱有病]이니 굶주

10) 박찬흥, 2011 「『三國遺事』 感通篇 '憬興遇聖'조를 통해 본 憬興의 생애」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32, p.71, p.83.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8/18 12:59(KST)

> 림·추위·더위·괴로움·즐거움·근심·걱정이 주가 됩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어울려 서로 원인이 되어서 사대 중 하나라도 조화롭지 못하면 백 가지 병이 다 일어납니다. 지금 스님의 병은 약으로 치료될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스꽝스러운 놀이를 구경하신다면 나을 것입니다."라고 하며 열한 가지 모습의 탈을 만들어 쓰고 춤을 추었다. 국사가 그 야릇하고 괴상한 모습에 매우 즐거워하다 보니, 어느덧 병이 다 사라진 줄도 몰랐다. 비구니가 떠나자 국사가 곧 사람을 시켜 그 뒤를 따라가 보게 하였다. 비구니는 南花寺 佛殿으로 들어가 숨어 버렸는데, 그가 가지고 있던 대나무 지팡이가 十一面觀世音菩薩의 상 앞에 놓여 있었다.[11]

『법화영험전』에서는 『삼국유사』에서 "憂勞所致"라고 표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우선 사람의 몸은 사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병이 없을 수 없다고 하며 병을 네 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사대 중 하나라도 조화롭지 못하면 병이 난다고 하였다. 경흥은 네 가지 종류의 병 가운데 두 번째 심병과 세 번째 객병, 네 번째 구유병이 함께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12] 몸에 난 병이 아니기 때문에 약으로는 치료할 수 없다고 하며 웃음을 유발시켜 정신적 치유를 시도한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질병의 발생 원인을 사대의 부조화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세상의 모든 만물이 地水火風의 사대로 이루어져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 사대의 부조화가 병의 원인이라는 것이 인도 병리학의 기본 바탕이다. 이 이야기가 원래 실려 있던 『해동고승전』과 『법화영험전』이 모두 고려 후기에 찬술된 것이기는 하지만, 아무런 전거 자료도 없이 내용을 삽입하지는 않

11) 了圓, 『法華靈驗傳』 卷下, 顯比丘尼身(『韓國佛教全書』 권6, 566c17~567a10).

12) 박찬흥은 "憂勞"라는 표현에서 경흥이 병에 걸린 원인을 세 번째와 네 번째가 나타난 것으로 보았다(박찬흥, 2011 앞의 논문, pp.82~83). 그러나 심리적 스트레스 역시 간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심병도 함께 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8/18 12:59(KST)

았을 것이다. 신라인들의 불교 의학 및 질병관에 대한 이해가 반영되어 있는 내용을 보아야 한다.

『金光明經』「除病品」에 대한 신라 승려들의 주석을 살펴보면 당시 질병의 원인 등에 대한 이해가 깊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금광명경』「제병품」은 석가모니의 과거세 중 하나인 流水가 아버지인 名醫 持水에게 의술을 배워 병들어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유수의 질문에 지수는 四大不調說을 바탕으로 1년의 계절 구분과 단위, 계절의 변화 및 음식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병과 그 기전, 질병에 대한 치료법과 약물 등을 상세히 답하고 있다.[13] 원효와 勝莊, 경흥 등이 주석을 하였는데, 그중에서 원효의 주석에서 기운의 부조화와 관련된 한국 고대의 질병관을 살펴볼 수 있다.[14]

원효의 『金光明經疏』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찬술된 『금광명경』 주석서인데, 현재는 전하지 않는다. 그러나 원효를 인용한 다른 저술들을 통해, 원효의 『금광명경소』의 내용을 일부분 재구성할 수 있다.[15] 경록의 기록에 의하면 『금광명경』은 여섯 종류의 번역본이 있었던 듯하나, 현재까지 전해지는 것은 5세기 중엽 北涼의 曇無讖이 번역한 『금광명경』 4권, 592년 隋의 寶貴가 엮은 『合部金光明經』 8권, 702년 唐 義淨이 번역한 『金光明最勝王經』 10권 등 세 종류이다. 원효의 주석서는 이들 가운데 『합부금광명경』 8권에 대한 주석서이다.[16]

---

13) 오재근·정종욱·신동원, 2016 「신라 승려의 『금광명경』 「제병품」 주석을 통해 살펴본 한국 고대 불교의학」 『의사학』 25-3, pp.340~342.

14) 후대에 勝莊과 憬興도 10권본 『金光明最勝王經』에 주석을 하였으나, 승장과 경흥의 「제병품」 주석에는 계절 이해나 병리 기전, 치료 방법 등에 대한 견해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약물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위의 논문, pp.359~361 참조.

15) 일본 승려들의 『금광명경』 주석서들에서 원효나 경흥의 인용 부분을 찾아 輯逸한 연구를 통해 이들의 주석이 일부 복원되었다. 金相鉉, 1994 「輯逸金光明經疏 -金光明最勝王經玄樞 所印 元曉疏의 輯編」 『東洋學』 24 ; 2000 「輯逸金光明最勝王經憬興疏」 『新羅文化』 17·18 참조.

16) 한명숙, 2017 「元曉 『金光明經疏』 輯逸의 현황과 그에 대한 비판적 검토(Ⅰ)」 『보조사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8/18 12:59(KST)

원효는 주석에서 음양오행론에 입각한 설명을 하며 사대를 근간으로 한 불교 의학과의 접목을 시도하고 있다. 계절에 따른 사대의 변화와 그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질병의 발생과 치료 내용 전반을 동아시아의 계절 변화에 입각한 오행 이론 및 五臟, 五味, 五色 등의 오행 배속 이론과 五行相克說 등을 중심으로 일관성 있게 설명하고 있다. 불교 의학의 유입으로 地水火風의 사대와 木火土金水의 오행이 충돌을 일으키자, 원효는 사대 중심의 병리 기전과 치료 방법을 오행론 중심으로 회통시키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17] 아울러 원효가 음양오행설로 질병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음행오행론이 신라의 지식인 사회에 우주의 운행과 자연의 질서를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강력한 이론 체계로 자리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18] 경전의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신라인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자 하였던 회통적 설명 방식이다. 이러한 원효의 주석을 통해, 당시 신라에 사대나 오행의 부조화에 의해 질병이 발생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상』 49, p.269.
일본 승려 간교[願曉]의 『金光明最勝王經玄樞』에 인용된 원효의 글을 살펴보면 『금광명경』 원문의 대부분이 『합부금광명경』과 일치하고, 담무참본에는 없는 「三身分別品」「業障滅品」「陀羅尼最淨地品」 등과 관련된 인용문이 매우 많다고 한다.

17) 오재근·정종욱·신동원, 2016 앞의 논문, p.353, pp.361~362.
한편 경흥의 『금광명최승왕경』 주석 내용을 살펴보면, 천문관에 있어서는 『漢書』「天文志」와 같은 중국의 천문 세계관을 자신의 체계로 엮어 나갔다고 이해된다(김일권, 2008 『우리 역사의 하늘과 별자리』, 고즈윈, pp.60~71 ; 김수태, 2009 「백제 의자왕대의 불교 -경흥을 중심으로-」 『百濟文化』 41, pp.126~127 참조). 「제병품」에 대한 경흥의 주석 내용은 많지 않으나, 경흥도 기본적으로 음양오행론을 사상적 기반으로 지니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8) 여인석·박형우, 1995 「우리나라 고대 불교의학의 한 단면 -원효의 경우-」 『醫史學』 4-2, pp.161~164.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8/18 12:59(KST)

2. 신의 징벌 및 원한 등 외부 원인

다음으로 하늘이나 신의 징벌로 나타나는 질병을 살펴보겠다. 『삼국유사』와 『해동고승전』에는 동진 승려 曇始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北魏의 제3대 太武帝 拓拔燾(재위 423~452) 시기에 崔皓라는 자가 불교를 싫어하여 도사 寇謙之와 함께 불교를 폐지하도록 권하였다. 담시가 탁발도를 감화시키려 궁궐 문 앞에 이르렀다는 말을 듣고, 담시를 죽이기 위하여 사람을 보내고 호랑이를 풀어놓았으나 해를 입힐 수 없었다. 이에 탁발도는 크게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다 癘疾에 걸리고, 최호와 구겸지는 惡疾이 발병해 사망하였다고 한다.[19] 탁발도와 최호, 구겸지의 병은 불법을 탄압하여 발병한 징벌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네 번째 유형은 악귀나 원혼 등의 외부 원인 때문에 발생하는 질병이다. 이 유형은 병에 걸린 당사자에 의해 피해를 본 원혼의 원망, 원망과 상관없는 사악한 존재의 장난으로 다시 나뉠 수 있다. 우선 원망을 품은 원혼에 의한 질병을 살펴보자. 이는 전근대 사회에서 자주 보이는 질병 발생 원인이다. 고대의 사유 체계 안에서는 불특정 귀신이나 악귀보다는 개연성이 있고 합리적인 질병관이라고 할 수 있다.

신라 신무왕은 원년(839)에 利弘이 활을 쏘아 등에 맞는 꿈을 꾸고 등에 종기가 생겼다[瘡發背].[20] 836년에 흥덕왕이 사망하자 金均貞과 金憲貞의 아들 悌隆이 왕위를 다투었는데, 이홍이 金明 등과 함께 제륭을 지지해 그가 희강왕으로 즉위하였다. 그 후 838년에 김명은 이홍 등과 모의하여 희강왕을 시해하고 본인이 민애왕으로 즉위하게 된다. 당시 청해진에 있던 김균정의 아들 祐徵이 장보고의 군사를 빌려 공격해 민애왕을 몰아내고 즉위하였으니, 그가 신무왕이다. 이홍은 화를 두려워해 도망쳤으나 체포되어 처형되었기 때문에 신무왕에게 원한을

19) 『三國遺事』 권3, 흥법 제3, 阿道基羅 ; 『海東高僧傳』 권1, 釋曇始.
20) 『三國史記』 권10, 신라본기 제10, 신무왕.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8/18 12:59(KST)

품고 꿈에 나와 병을 일으켰다고 보았던 것이다.

고구려 유리왕 19년(B.C. 1)에 郊祀에 쓸 돼지가 달아나 託利와 斯卑에게 이를 쫓아 잡아오게 하였다. 이들은 그 과정에서 돼지의 다리 힘줄을 끊어 상처를 냈으며, 제사에 쓸 희생을 상하게 하였다 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이후 왕이 병에 걸리자 무당이 탁리와 사비의 원혼 때문이라는 病因을 제시하였고, 왕이 사과를 하여[王使謝之] 병에서 회복하였다.[21] 앞선 신무왕 등창의 경우에는 해결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원한에 의한 발병의 치료 방법은 기본적으로 원한을 풀어주는 방법이었다. 이에 유리왕대의 무당은 '謝'하여 원귀를 달래는 방법을 취한 것이다.[22] 유사한 사례로 신문왕이 등창[發疽背]이 났는데, 전생에 信忠이라는 인물을 잘못 노비로 삼아 그 원한으로 발병하였다는 진단을 받고 절을 지어 명복을 빌었다는 이야기가 있다.[23] 몸에 난 등창은 승려 惠通의 주문으로 완치가 되었으나, 근본 원인인 신충의 원한을 풀기 위하여 절을 창건하였다. 본인이 전생에 지은 잘못을 반성하고 명복을 빌어 속죄하는 행위를 통하여 病因이 해소되도록 한 것이다.

다음으로 귀신 등 악한 존재에 의한 질병이다. 앞의 사례들과 달리, 환자와 직간접적 원한 관계가 보이지 않으나 병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악귀들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삼국유사』「密本摧邪」조와 「惠通降龍」조에 실려 있는 치병 관련 내용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주술을 사용해 병을 일으키는 사악한 존재들을 물리침으로써 치료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서술하겠다.

한편 외부적으로 해를 끼치는 구체적인 방법을 서술하고 있는 자료가 있어

21) 『三國史記』 권13, 고구려본기 제1, 유리왕.

22) 장인성, 2000 앞의 논문, pp.262~263.

23) "初神文王發疽背請候於通 通至呪之立活 乃曰 陛下曩昔爲宰官身誤決臧人信忠爲隷 信忠有怨生生作報 今玆惡疽亦信忠所祟 宜爲忠創伽藍 奉資祐以解之 王深然之 創寺号信忠奉聖寺 寺成空中唱云 因王創寺脫苦生天怨已解矣 因其唱地置折怨堂 堂與寺今存"(『三國遺事』 권5, 신주 제6, 惠通降龍).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8/18 12:59(KST)

눈길을 끈다. 고려 태조 왕건의 조부 作帝建의 이야기가 그것이다.[24] 작제건이 아버지를 찾아 중국으로 가는 배를 탔는데 구름과 안개로 사방이 컴컴해지며 3일 동안 배가 움직이지 않았다. 점을 쳐보니 고려 사람을 남기고 가라 하여 작제건이 활과 화살을 들고 배에서 뛰어 내렸다. 바위에 내려서자 서해 용왕이 노인의 모습으로 나타나 본인을 괴롭히는 늙은 여우를 제거해 달라는 부탁을 한다.[25] 그 여우가 해질녘에 熾盛光如來의 모습을 하고 구름과 안개 사이에 해·달·별들을 벌여놓고는 螺角을 불고 북을 치며 음악을 연주하며 와서 바위에 앉아 『臃腫經』을 읽어 극심한 두통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작제건이 노인의 청을 수락하고 기다리자 치성광여래가 내려 왔는데 작제건은 진짜 부처님이 아닌지 잠깐 의심하였으나, 결국 활을 쏘아 여우를 맞추었다. 이 이야기에서의 질병은 노인의 두통이고 질병의 원인은 치성광여래의 모습을 한 여우가 『옹종경』을 읽는 것이다. 작제건이 외부적 질병 원인, 즉 여우를 제거하여 『옹종경』을 독경하지 못 하게 함으로써 노인의 병은 치유되었다.

여우는 치성광여래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다고 한다. 치성광여래는 불교에서 日月星辰을 관장하는 존격이다. 인도의 성수신앙이었던 九曜信仰이 중국 전통 북극성 신앙과 융화되면서 만들어진 새로운 북극성 신앙이기도 하다.[26] 그가 일

24) 『高麗史』 권1, 高麗世系.
작제건 설화는 『삼국유사』 거타지 설화와의 유사성, 치성광여래 및 여우의 상징성을 통한 나말여초 정치사적 해석 등 다양하게 연구되었다. 본고에서는 질병의 발생 원인과 치병 방식으로의 轉用 가능성에 주목하였기 때문에 이 설화와 관련된 정치사적 논의는 언급하지 않겠다.

25) 『三國遺事』에 수록된 다양한 설화 속에서 여우는 토착신앙과 밀접한 경우가 많다. 거타지 설화에서는 여우가 사미의 모습으로 나타나 주문을 외워 용왕을 괴롭힌다. 사미는 구족계를 받지 못한 출가자로 불완전한 승려임을 암시한다. 승려가 주문을 외운다는 형식을 취하지만 그것은 겉모습일 뿐, 내면은 토착신앙의 요소가 채우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신라 하대, 특히 진성여왕대 토착신앙과 혼재된 다라니 신앙의 유행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신라 하대의 다라니 신앙에 대해서는 김연민, 2019 「신라 하대 다라니신앙과 그 의미」 『한국고대사탐구』 33, pp.462~463 참조.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8/18 12:59(KST)

월성신 등 권속들을 거느리고 음악에 둘러싸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은 치성광여래 강림도를 연상시킨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옹종경』을 읽는 것은 독경 의례를 활용한 방식이다.[27] 『옹종경』은 실재하는 불교 경전으로 볼 수 없다. 臃腫은 부스럼이나 붓기로, 제목에서 저주의 의미를 담고 있다. 불화와 같은 등장 장면과 경전명은 독경 의례의 모습을 만들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반대로 질병을 없애는 실마리가 되기도 한다. 질병을 만들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독경하는 경전을 바꾸면 치병 의례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Ⅲ. 주술적 치료의 전개

일반적으로 고대인들의 관념에서 질병이란 합리적 대응 방식으로 치료 가능한 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주술적 현상이었다. '醫'의 古字인 '毉'는 무당 또는 승려가 병을 일으킨 惡情을 내쫓기 위하여 矢나 殳와 같은 무기를 사용한다는 뜻을 나타낸다. 이를 통해 초기에 醫와 巫가 분리되지 않았던 측면을 엿볼 수 있다.[28]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고대에는 질병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주술적 현상을 꼽았을 뿐 아니라, 치료에도 주술적 방식이 사용되었다. 주술적 치료는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주술을 활용하여 病因을 제거하였고, 치료 방법에 주술적 의미를 가미하여 심리적 안정과 치료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도 하였다.

---

26) 정진희, 2015「羅末麗初 熾盛光如來 信仰과 圖像의 傳來 -『高麗史』 기사를 중심으로-」『韓國古代史探究』 20, p.191.

27) 정진희도 이 부분을 밀교의 방편법으로 다라니를 외워 소재법을 행하는 치성광여래 신앙의 신행법을 묘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위의 논문, p.196).

28) 金斗鍾, 1966 앞의 책, p.12.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8/18 12:59(KST)

1. 주술을 활용한 病因 제거

한국 고대 치료 문화 가운데 질병 치료에 주술을 사용한 대표적인 사례는 『삼국유사』「혜통항룡」조의 주인공 혜통을 꼽을 수 있다. 혜통은 당에 유학을 가 無畏三藏에게 가르침을 청하였는데 삼장은 오랑캐[嵎夷]가 法器를 감당할 수 없다며 허락하지 않았다. 3년을 섬겼으나 허락을 받지 못하자 분하고 애가 타서 화로를 머리에 얹어 두었고 조금 뒤에 정수리가 터졌다. 삼장이 이를 보고 화로를 치우고 상처를 손가락으로 어루만지며 神呪를 외우자 상처가 아물었다고 한다. 이후 삼장은 혜통을 받아들여 印訣을 전해주었다고 한다. 혜통의 스승이었던 무외삼장도 주문으로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주문을 활용한 혜통의 치유 방법은 스승으로부터의 가르침이었을 것이다.

혜통이 무외삼장의 제자가 된 후, 당 황실의 공주가 병에 걸려 삼장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삼장은 본인 대신 혜통을 추천하였다. 혜통은 흰콩 1斗를 은그릇에, 검은콩 1두를 금그릇에 넣고 주문을 외워 神兵으로 변화시켜 병의 원인이었던 蛟龍을 쫓아내어 공주를 치료하였다. 질병의 유형으로 보면 외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에 해당한다. 이때 혜통이 사용한 주술은 일종의 模倣呪術(imitative magic)이다. 후에 효소왕과 갈등이 있어 병사들이 혜통을 잡으러 왔을 때, 사기병을 내보이며 병의 목 부분에 선을 긋자 병사들의 목에도 선이 그어졌다. 병의 목을 부러뜨리면 어떻게 되겠냐는 혜통의 말에 병사들이 모두 도망갔다고 한다. 이 역시 병을 활용한 모방주술이다. 혜통은 신주뿐 아니라 모방주술에 능했던 승려였다. 모방주술은 주술의 가장 원시적인 형태로, 신주의 사용 등과 비교하면 불교적 관념이 적은 느낌이 든다. 그러나 순수한 주술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오히려 더 심화되고 철저한 것이라 볼 수 있다.[29]

혜통에게 쫓겨난 교룡은 신라 文仍林에 와서 해악을 끼쳤다. 교룡이 당나라 공주의 병을 일으켰다는 것과 연계해 보면, 신라에 와서 끼친 해악은 질병을 의

29) 高翊晋, 1989『韓國古代佛教思想史』, 동국대학교 출판부, p.420.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8/18 12:59(KST)

미한다고 보인다. 교룡이 신라로 온 것은 당에서 발생한 疾疫이 신라로 전파된 것, 즉 전염병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30] 이에 鄭恭(?~692)이 당에 있던 혜통을 신라로 불러와 교룡을 쫓아 버린다. 교룡은 정공에게 원한을 품고 버드나무로 변해 그을 죽게 만들었다. 이 일에 연루되어 혜통까지 위기에 몰렸으나, 앞서 언급한 병을 활용한 모방주술로 위기를 모면하였다. 그 후 혜공왕의 왕녀가 병에 걸리자 이를 치유해 주었고, 이 일을 계기로 왕에게 정공의 억울함을 알렸다. 혜통이 혜공왕 왕녀의 병을 치료한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는 없으나 혜통의 특기인 주문을 활용한 치병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혜통항룡」조를 관통하는 중요 병인인 교룡이 機張山으로 가서 熊神으로 변하여 다시 백성들을 괴롭히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혜통은 不殺戒를 주어 그를 깨치고 해가 그쳤다고 한다. 불살생은 不殺生, 不偸盜, 不邪婬, 不妄語, 不飮酒의 五戒 가운데 하나이다. 웅신이 오계를 받았다는 것은 부처에게 귀의하였다는 것으로, 불타의 무한한 능력과 교화·감화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평가받는다.[31] 그러나 고대인들의 사유 체계 속에서 불살생계나 오계를 받는 것은 단순한 교화, 감화에 의한 일시적인 치료가 아닐 것이다. 외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병인을 불교도라면 지켜야 할 기본 계율로 속박하여 질병의 원인을 삭제한다고 하는 논리의 치료 방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삼국유사』「밀본최사」조의 선덕여왕 치병 내용도 주술을 활용한 사례로 꼽을 수 있다.

B. 선덕왕 德曼이 병에 걸린 지 오래되었는데, 흥륜사의 승려 法惕이 조칙에 응

30) 노중국, 2011 「『삼국유사』 惠通降龍조의 검토」 『신라문화제 학술발표논문집』 32, p.45.

31) 위의 논문, p.52.
노중국에 의하면 콩 주술에서 불살계 수여로의 변화는 질병 치료의 관점에서 질병 퇴치 방법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 질병을 고치는 새로운 의술과 약재를 개발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추정하였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8/18 12:59(KST)

> 하여 병시중을 들어 오래되었으나 효험이 없었다. 이 때에 密本法師가 德行으로 나라 안에 명성이 높아서 좌우에서 그를 대신할 것을 청하니 왕이 조서를 내려 궁궐 안으로 맞아들였다. 밀본은 宸仗 밖에서 『藥師經』을 읽었다. 卷軸이 한번 돌자, 가지고 있던 六環杖이 침전 안으로 날아 들어가서 한 마리 늙은 여우와 법척을 찔러 뜰 아래로 거꾸로 내던졌다. 왕의 병이 이에 나았는데, 이때 밀본의 정수리 위에 오색의 神光이 발하니 보는 사람이 모두 놀랐다.[32]

밀본이 독송한 『약사경』은 『灌頂經』의 제12권인 『灌頂拔除過罪生死得度經』으로 보인다.[33] 『관정경』은 전체적으로 業說을 중심으로 치병과 除厄의 주술을 전개한 경전이다. 이 경전에 입각해 강력한 치병 주술을 행한 밀본은 신라 최초의 본격적 밀교 승려라 평가받는다.[34] 밀본이 밀교 치료의 대명사로 일컬어지지만, 독경 자체는 밀교 술법이라고 할 수 없다.[35] 밀본의 사례에서 주술적인 요소는 『약사경』을 둘러싼 약사신앙이 가지는 밀교적 성격과 『약사경』을 독경하면서 육환장을 날려 법척과 병의 원인이 되는 여우를 찔렀다는 신이함이다.[36] 밀

32) 『三國遺事』 권5, 신주 제6, 密本摧邪.

33) 『관정발제과죄생사득도경』은 梁代에 『관정경』의 제12권으로 편입되어, 크게 유행하였다. 따라서 그 영향이 신라에 미쳤을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후에 明朗의 文豆婁祕法이 『관정경』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高翊晉, 1989 앞의 책, p.397), 밀본이 독송한 『약사경』은 『관정경』 제12권으로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한편 『관정발제과죄생사득도경』은 경전명에서 '약사'를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앞선 번역이 매끄럽지 않아 隋代에 達摩笈多가 『佛說藥師如來本願經』을 새로 번역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밀본이 독경한 『약사경』일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김연민, 2012 「密本의 『藥師經』 신앙과 그 의미」 『한국고대사연구』 65, pp.219~221).

34) 高翊晉, 1989 앞의 책, p.399.

35) 김연민도 『약사경』 신앙은 어떤 특정 종파의 신앙이라기보다는 불교 내에서도 보편적인 성격을 지녔으며, 밀본은 이 경전에 근거하여 보편적인 불교신앙을 정립하고자 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김연민, 2012 앞의 논문, pp.222~223).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8/18 12:59(KST)

본의 선덕여왕 치료에는 병에 걸린 자들을 낫게 해주겠다는 약사여래의 서원을 담은 『약사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37] 그러나 밀본의 선덕여왕 치유 사례에서는 『약사경』의 경전 내용만 작용한 것이 아니다. 직접적인 치료는 여우를 제거함으써 이루어졌다. 이는 질병을 낫게 하겠다는 서원이 병인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발현된 것이다. 요컨대 『약사경』이라는 경전 독경과 주술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밀본최사」조의 金良圖 이야기도 사악한 외부 존재가 병을 일으키고 주술로 病因을 제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라 때 승상이었던 김양도가 어릴 때 갑자기 입이 막히고 몸이 굳어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였는데, 그 원인은 귀신[鬼]의 장난 때문이었다.[38] 무당을 부르면 무리지어 조롱하고 法流寺 승려를

36) 창녕 화왕산성의 蓮池에서 출토된 목간 4(유물번호 196)는 사람 모양으로 가공된 것인데, 한쪽 면에는 묵서가 있고 다른 쪽 면에는 여성의 형상을 그린 그림과 묵서가 함께 있다. 그리고 여성의 형상 그림에는 정수리, 목, 양 가슴, 양 손에 각각 하나씩 6개의 쇠못을 꽂은 구멍이 있고 정수리, 왼쪽 가슴, 왼손에는 3개의 못이 꽂힌 채로 발굴되었다. 이 인형 목간에 대해 질병 치료를 위해 아픈 부위에 상처를 내는 刺傷法을 행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자상법은 인체와 환부를 침으로 찌르거나 피부에 상처를 내어 피가 나게 해서 병마를 내쫓는 주술적 치유 방법인데, 인체를 대신해 擬製를 사용하기도 한다(金昌錫, 2010 「창녕 화왕산성 蓮池 출토 木簡의 내용과 용도」 『목간과 문자』 5, pp.108~111 참조).
기존 연구에서는 여우와 법척을 동일한 성격의 존재로 보고, 밀본이 이들을 제거함으로써 巫覡과 전통에 의거한 치유보다 『약사경』 치유가 더 수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화로 파악하였다. 그런데 법척이 밀본과 대립적인 입장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척까지 찌를 이유는 없어 보인다. 여기에서 법척을 의제로 삼아 자상법을 행하였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척은 선덕여왕의 병구완을 하던 이로, 선덕여왕 대신 법척을 찌름으로써 病因인 여우를 쫓아내려는 행위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밀본은 새로운 밀교 치료법과 전통적 치료법을 병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7) 치병을 위한 『약사경』 독경 및 그 신앙에 대해서는 본고 Ⅳ장 1절 참조.

38) 장인성은 김양도 집에 와서 음식을 먹은 귀신이 김양도 집안에 원한을 품고 죽은 귀신이거나 비명횡사와 같이 정상적인 죽음을 맞지 못한 귀신, 혹은 제사를 지내줄 후손이 없는 귀신 등일 것으로 보았다(장인성, 2000 앞의 논문, p.257).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8/18 12:59(KST)

청하였더니 철퇴로 머리를 쳐 죽게 하였다. 이에 밀본을 청하였는데, 밀본은 앞선 이들과 달랐다. 밀본이 오기 전에 갑옷과 창으로 무장한 大力神이 귀신들을 잡아가니 밀본이 와서 경전을 펴기도 전에 병이 나았다고 한다. 밀본이 치료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력신이 귀신을 잡아갔다고 하는, 구체적이고 일종의 물리적 행위를 통한 것이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귀신 등에 의한 질병은 그 귀신을 물리친다는 행위가 치병의 근본 원리임을 확인할 수 있다.

밀본이 어린 김양도를 치유할 때 직접적으로 주술을 사용하였다는 묘사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밀본의 치병 활동도 주술을 활용한 것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밀본최사」조는 神呪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김유신의 친척 秀天이 오랫동안 惡疾에 걸려 있었을 때 김유신이 밀본으로 생각되는 거사를 불러 진찰을 하게 하였다. 마침 그 자리를 찾은 因惠라는 법사가 거사를 모욕하며 신통력 대결을 요청하고는 향로를 피우고 주문을 외워 오색구름과 天花를 만들어 냈다. 거사의 차례가 되자 그는 손가락을 튕기는 것만으로 인혜를 제압하였다. 이는 거사의 법력이 인혜보다 뛰어남을 보여주는 동시에, 거사도 주술을 바탕에 두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묘사는 없으나 밀본의 치병 행위는 주술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의약과 치료에 보이는 주술적 요소

다음으로 의약과 치료에 주술이나 方術이 사용된 사례들을 살펴보자.

고대에 사용된 민간요법으로 대표적인 것이 호랑이에게 입은 상처에 興輪寺 장을 바르고 나발 소리를 들으면 낫는다는 것이다.[39] 『삼국유사』 「김현감호」조에 실려 있는 내용으로, "지금 민가에서도 그 방법을 쓴다"는 것으로 보아, 고려 후기까지 통용되었던 듯하다. 고려시대 『鄕藥救急方』에 메주를 물에 불려 종기

39) "今日被爪傷者 皆塗興輪寺醬 聆其寺之螺鉢聲 則可治 … 今俗亦用其方"(『三國遺事』 권5, 감통 제7, 金現感虎).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8/18 12:59(KST)

를 치료하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40] 장을 바르는 것은 민간요법 중에서도 의학적 근거가 있는 처방이다. 그러나 다른 곳이 아닌 흥륜사의 장을 발라야 한다는 것은 주술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흥륜사는 신라 때 주술과 주술을 활용한 질병 치료로 유명한 사찰이었던 듯하다. 선덕여왕이 병에 걸렸을 때 제일 먼저 초청되었던 인물이 흥륜사 승려 법척이었고, 김양도가 병이 나은 후 불심이 깊어져 흥륜사에 불사를 하였다는 점에서 밀본을 흥륜사 승려로 보는 시각도 있다.[41] 이렇게 주술 치료로 명성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곳이 아닌 흥륜사의 장이 효과가 있다는 민간요법이 나왔을 것이다.

일본 헤이안[平安]시대의 궁중 의관이었던 鍼博士 단바노 야스요리[丹波康頼]가 편찬한 『醫心方』에는 현재 일실된 『新羅法師方』을 인용하여 약을 복용할 때 외웠던 다라니를 소개한 구절이 있다.[42] 직접적으로 병을 치료하기 위한 다라니는 아니지만, 복용 시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염송되었던 것이었다. 당시 사람들은 약이 가지는 어떠한 약리 작용에 의해 병이 낫는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약에 주술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복용하였던 듯하다.[43] 이 다라니는 치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의승이나 밀교승들만 외웠던 것이 아니라, 약을 복용하는 사람은 누구나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치병과 관련된 다라니의 염송이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 고대 의학사에서 주술적 치료와 관련해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주금사의 존재이다. 이와 관련된 최초의 기록은 『日本書紀』에 나온다. 비다츠[敏達] 6년(백

40) 이현숙, 2019 「치유 공간으로서의 한국고대 사찰 -신라 흥륜사를 중심으로-」 『新羅史學報』 46, pp.210~211.

41) 위의 논문, p.205.

42) "服藥頌 新羅法師方云 凡服藥呪曰 南無東方藥師琉璃光佛 藥王藥上菩薩 耆婆醫王 雪山童子 惠施阿竭 以療病者 邪氣消除 善神補助 五臟平和 六府調順 七十萬脈 自然通張 四體强健 壽命延長 行住坐臥 諸天衛護 莎訶(向東誦一遍乃服藥)"(『醫心方』 卷2).

43) 여인석, 1996 「삼국시대의 불교교학과 치병활동의 관계」 『醫史學』 5-2, p.201.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8/18 12:59(KST)

제 성덕왕 24년, 577년)에 백제왕이 律師, 禪師, 比丘尼, 造佛工, 造寺工 등과 함께 呪噤師를 일본에 보냈다고 한다. 이때 주금사는 주문과 기도를 통해 질병을 치유하는 일을 하던 불교 승려로 생각된다.[44] 일본 사서에 나오는 단편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고구려와 신라에도 주금사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등은 명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동시대의 당과 일본, 후대인 고려에 의료 담당 관료인 '주금사'가 있었던 점과 그들의 역할이 실마리가 된다.

당 주금사에 대한 기록은 『唐六典』에 실려 있다. 주금박사는 太醫署 소속으로 주금생을 교육시켜 주금으로 사악한 귀신 때문에 일어나는 해악과 근심을 없앤다고 한다. 方術을 하는 도사에게서 나온 道禁과 불교에서 나온 禁呪가 있다고 하여,[45] 종교·사상적으로 도교와 불교의 주술을 구분 없이 활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기록은 당시 당에 주금사를 배출하는 체계적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었음을 보여준다.[46] 일본의 기록에 의하면 주금사는 불법의 呪를 唱하여 病災를 물리치는 사람이었다. 일본의 율령제도에서는 宮內省 典藥寮에 주금사 2인과 주금박사 1인을 두었는데, 주금박사는 주금사 가운데 법술이 우수한 자를 선발하였다고 한다. 백제에서도 당·일본과 유사하게 주금사를 배출하는 전문 시스템을 마련해 양성하고, 주금사를 제도권 내에 흡수했을 가능성이 크다.[47] 신라의 경우 주금사는 없었으나 供奉卜師라는 관직명이 보인다. 『삼국사기』 직관지에 의하면 이들은 供奉醫師와 함께 藥典에 소속되어 있다. 공봉복사가 주금사와 유사한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48] 주술적 치료, 특히 다라니 염송에는 의례 절차

44) 백제 주금사에 대해서는 金斗鍾, 1966 앞의 책, p.60 ; 장인성, 2000 앞의 논문, pp.266~268 ; 최병철, 2001 「高麗時代의 醫療와 佛敎」 『역사와 실학』 21, pp.72~73 ; 吉基泰, 2006 「百濟의 呪噤師와 藥師信仰」 『新羅史學報』 6, pp.78~90 ; 孫弘烈, 2013 『韓國醫學史硏究 -制度史를 中心으로-』, 修書院, pp.77~78 등 참조.

45) "呪禁博士掌敎呪禁生 以呪禁拔除邪魅之爲厲者 有道禁 出於山居方術之士 有禁呪 出於釋氏"(『唐六典』 권14, 太常寺 太醫署).

46) 吉基泰, 2006 앞의 논문, p.80.

47) 위의 논문, p.83, p.86.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8/18 12:59(KST)

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심리적 안정감을 부여해 주는 역할도 있었을 것이다.

한편 위의 당 주금박사의 설명에서 볼 수 있듯이, 주금은 도교와 불교의 경계가 모호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주금 외에도 그 경계선 상에 있는 치료 방법이 있다. 遁甲이 그것이다.

> C. [스이코 10년(602)] 겨울 10월 백제의 승 觀勒이 와서, 曆本과 天文·地理書, 遁甲·方術書를 공납하였다. 이때 서생 3, 4명을 선발하여 관륵 아래에서 배우게 하였다. 陽胡史祖 玉陳은 역법을 배웠고 大友村主 高聰은 천문과 둔갑을 배웠으며, 山背臣 日立은 방술을 배웠는데, 모두 배움에 의해서 업적을 이룩했다.[49]

위의 인용문 C는 『일본서기』의 기사로, 일본에 역서와 천문지리서, 둔갑 및 방술서를 전해준 백제 승려 관륵에 관한 내용을 전하고 있다. 관륵이 단순히 서적만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서생들을 선발해 가르쳤다는 것으로 보아 그 자신이 역법, 천문, 둔갑 등에 정통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둔갑은 奇門遁甲을 가리키는데, 흔히 도사, 도교의 영역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관륵은 승려이다. 즉, 기문둔갑을 승려, 불교의 영역에서도 다루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불교에서는 기문둔갑을 어떻게 활용하였을까. 시대가 조금 떨어지지만, 『조선왕조실록』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세종의 어머니 元敬王后 閔氏의 치병을 위해 둔갑법[術士遁甲法, 遁甲之術]을 사용한 사례가 있다. 세종 2년(1420) 원경왕후 민씨가 학질에 걸렸는데 치료를 해도 차도가 없자, 세종은 치료 방법으로 원경왕후를 開慶寺로 옮겼다.[50] 이때 術士遁甲法이 사용되었다. 개경

48) 孫弘烈, 2013 앞의 책, p.50.

49) 『日本書紀』 권22, 推古天皇 10年.

50) "上及讓寧孝寧奉大妃 避病于開慶寺 用術士遁甲法 悉屛侍衛夜出 唯宦官二人侍女五人內奴十四人從之 … 上親行藥餌精勤 供佛飯僧 病猶未歇"(『世宗實錄』 권8, 세종 2년 6월 6일, 癸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8/18 12:59(KST)

사로 옮긴 뒤에도 여전히 차도가 없었던지 며칠 후 海恂에게 둔갑술을 행하도록 한 후 어머니를 모시고 吳溥의 집으로 가려고 하였다.[51] 얼마 후에는 상왕, 즉 태종이 원경왕후의 피병소를 방문해 둔갑으로 避方하는 것도 효험이 없다는 말을 한다.[52] 이상의 사료에서 공통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것은 둔갑이 자리를 옮기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즉, 둔갑으로써 치료를 한다는 것은 병이 낫는 지점으로 환자를 옮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기문둔갑을 활용한 치료는 의학적인 치료나 다라니·주술을 통한 치료 방식이 아니다. 방위를 점치는 方術로, 병의 추이를 점치거나 피병소를 찾는 데에 활용되었다고 생각된다. 일종의 치료 보조 수단이다. 전근대 사회에서 병을 치유하기 위한 방편으로 피병을 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다. 왕이 사찰이나 신하의 집으로 피병을 위해 자리를 옮기는 사례는 자주 등장한다. 지금까지는 불보살의 위신력으로 병마를 물리치고자 사찰로 이어하거나 환경에 변화를 주어 치료를 돕고자 한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피병의 많은 경우, 吉方으로 거처를 옮겨 병마를 물리치고자 하는 기문둔갑이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卯).

51) "上及讓寧孝寧奉大妃 令道流僧海恂先行遁甲之術 欲向豐壤 吳溥家 迷失路 誤到他家 家甚隘陋 又尋豐壤南村注簿崔詮家 乃留祈祝 病猶未愈"(『世宗實錄』 권8, 세종 2년 6월 10일, 丁未).

52) "上王潛幸避病所 視大妃疾 出御外廊 命備晝膳 勸上及讓寧孝寧食 … 上王曰 爾以予言出語之曰 大妃之病 全是瘧證 無足疑矣 近日遁甲避方 終無驗效 乃令通接人物 大妃自誠寧死後傷悼不食 以至今日 加以瘧證 羸憊尤甚 然言語顔容如舊"(『世宗實錄』 권8, 세종 2년 6월 13일, 庚戌).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8/18 12:59(KST)

Ⅳ. 불교 경전에 의거한 치유

1. 교설 내용에 근거한 치료

한국 고대사에서는 다양한 경전이 치병을 위해 독경되었다. 그 가운데 『약사경』 독경은 이른 시기에 나오는 사례인 동시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앞 장의 인용문 B에서 제시한 밀본의 선덕여왕 치유 기사가 그것이다. 『약사경』에는 약사여래의 12대원과 琉璃光淨土의 묘사 및 그 부처의 위신력과 續命法이 설해져 있다. 그중에서도 약사여래의 12대원이 핵심인데, 그 속에 질병으로 고통 받는 중생들의 모든 질병을 낫게 하며 無上菩提를 이루도록 하겠다는 서원이 있다.[53] 또한 과거세에 저지른 죄악 때문에 생긴 병이 아니라면, 지독한 병에 시간이 지나도 차도가 없을 때 약사유리광불의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나을 것이라고 설한다.[54] 이 내용들을 근거로, 밀본은 선덕여왕의 치병에 『약사경』을 독경하였을 것이다. 더불어 기존의 치료 권력이었던 법척을 病因인 여우와 함께 찌른 내용을 통해 밀본이 법척보다 더 뛰어나다는 내용을 담음으로써 『약사경』의 수승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선덕여왕 치병 설화는 신라의 초기 밀교 승려들이 기반 확보를 위하여 치병 활동에 힘을 기울이며 신라 사회에 지반을 넓혀 가던 상황을 잘 보여준다. 그 결과 수많은 약사불상이 조성되어 신라 통일 이전과 중대, 하대에 각각 10기 이상의 사례가 남아 있다. 또한 『약사경』에 대한 관심도 지대하였던 듯, 경흥과 道倫

53) "第七願者 使我來世十方世界 若有苦惱無救護者 我為此等攝大法藥 令諸疾病皆得除愈 無復苦患至得佛道"(帛尸梨蜜多羅 譯, 『佛說灌頂經(卷12)』『佛說灌頂拔除過罪生死得度經』, T.1331, 532c21~23).

54) "佛告文殊我但為汝 略說藥師瑠璃光佛禮敬功德 若使我廣說是瑠璃光佛無量功德 與一切人求心中所願者 從一劫至一劫故無不周遍 其世間人若有著床痿黃困篤惡病 連年累月不差者 聞我說是藥師瑠璃光佛名字之時 橫病之厄無不除愈 唯宿殃不請耳"(帛尸梨蜜多羅 譯, 『佛說灌頂經(卷12)』『佛說灌頂拔除過罪生死得度經』, T.1331, 534a26~b3).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8/18 12:59(KST)

이 『藥師經疏』를 저술하고 太賢이 『本願藥師經古迹』을 저술하였다.[55] 불교의 대표적 치병 경전이면서 실제로 왕의 치병에 활용되어 효과가 입증되었기 때문에 『약사경』에 대한 관심과 신앙이 높았을 것이다.

다음으로 고대에 치병 의례로 개설되었던 백고좌회를 살펴보겠다.

D-1. [선덕여왕 5년(636)] 3월에 왕이 병이 들었는데 의술과 기도로 효과가 없었으므로 皇龍寺에서 백고좌회[百高座]를 열어서 승려들을 모아 『仁王經』을 강론하게 하고, 100명에게 승려가 되는 것을 허락하였다.[56]

D-2. [헌강왕 12년(886)] 여름 6월에 왕이 병이 들자 나라 안의 죄수를 사면하였다. 또 황룡사에서 백고좌를 설치하고 경전을 강론하였다.[57]

『삼국사기』에는 선덕여왕 5년에 왕의 치병을 위해 행해진 조치들이 일목요연하게 기술되어 있다. 여왕이 병이 들자 궁중의 御醫가 치료에 임하였고 기도를 올렸으나 효험이 없자 황룡사에서 백고좌회를 개설하고 승려 100인을 출가시켰다고 한다. 당시 신라 왕실에 대한 불교의 영향은 절대적이었던 점으로 미루어, 왕의 치병 기도를 행한 것은 승려였을 것이다. 기도, 의례, 度僧은 군왕들이 치병을 위하여 의례적으로 행하는 전형적인 의식들이었다. 신라에서도 선덕여왕 시기에 이르면 이들이 국왕 치병을 위한 하나의 의례로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58]

백고좌회는 『인왕경』의 「護國品」을 근거로 개설되었던 의례이다. 1백 개의

55) 신라의 약사신앙에 대해서는 정병삼, 2013 「신라 약사신앙의 성격 -교리적 해석과 신앙활동-」 『불교연구』 39 참조.

56) 『三國史記』 권5, 신라본기 제5, 선덕왕 5년.

57) 『三國史記』 권11, 신라본기 제11, 헌강왕 12년.

58) 이현숙, 2009 「질병, 치료, 종교 -한국 고대 불교의학-」 『韓國思想과 文化』 48, pp.160~161.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8/18 12:59(KST)

高座에 1백 명의 고승이 앉아 『인왕경』을 강설하므로 백고좌회라고 한다.[59] 경전에 의하면 나라가 어지럽고 도적이 들끓을 때 백고좌회를 열고 하루에 두 번이 경전을 강설하면 나라 안의 귀신들이 즐거이 듣고 나라를 보호한다고 하였다.[60] 경전 안에 국왕의 질병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전근대 사회에서 왕의 신변에 일어나는 변고는 국내외적으로 나라를 위태롭게 만드는 요인이기 때문에, 백고좌회를 통해 왕의 쾌유를 기원했을 것이다.

치병에서 종교 의례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개설된다. 첫 번째는 치병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치병 의례 과정을 통해 여러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신앙적 의지가 표면화된다는 것이며, 세 번째는 실제 병의 치료를 이루게 해 주는 의미를 가진다.[61] 백고좌회의 경우, 1백 명의 고승이 참여하는 만큼 의례의 규모가 매우 컸기 때문에 왕실의 치병이 아니면 개설되기 어려웠다. 그래서 백고좌회는 왕의 질병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보여주는 의례이다. 동시에 불보살의 위신력에 기대어 왕의 질병으로 위험해진 국가의 수호력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의미를 가지며, 그 결과 왕이 실제로 치유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한편, 위의 사례들에서는 백고좌회의 개설과 함께 도승이 이루어져 눈길을 끈다. 도승이란 '得度爲僧'을 줄인 말로 나라에서 출가를 허용하여 승려가 되는

59) 백고좌회의 사상적 배경과 구체적 개설 방법은 김복순, 2010「신라의 백고좌법회」『新羅文化』36 참조.

60) "爾時佛告大王 汝等善聽 吾今正說護國土法用 汝當受持般若波羅蜜 當國土欲亂破壞劫燒賊來破國時 當請百佛像百菩薩像百羅漢像 百比丘衆 四大衆七衆共聽請百法師講般若波羅蜜 百師子吼高座前燃百燈 燒百和香 百種色花 以用供養三寶 三衣什物供養法師 小飯中食亦復以時 大王 一日二時講讀此經 汝國土中有百部鬼神 是一一部復有百部樂聞是經 此諸鬼神護汝國土"(鳩摩羅什 譯,『佛說仁王般若波羅蜜經』卷下「護國品」第五, T.0245, 829c29~830a09).

61) 류성민, 2004 앞의 논문, pp.7~9 참조.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8/18 12:59(KST)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한다. 신라의 경우, 기록에는 진흥왕 5년(554)에 처음 도승을 한 것으로 나오나 불교가 공인된 법흥왕대에 이미 실시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62] 현재 남아 있는 도승에 관한 기록은 『삼국사기』에서 7건 찾을 수 있다. 고대의 도승은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 첫 번째는 절을 창건하면서 그 절의 福田을 삼기 위해 도승을 하는 경우이다. 두 번째는 왕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도승이며, 세 번째는 왕의 恩典과 善政을 보여주기 위한 도승이다.[63] 보통 도승은 지지 세력 확보 등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시행되었으며, 자연재해로 혼란했던 시기에 국가적 어려움을 불교의 힘으로 극복하고자 실시된 정책 가운데 하나였다. 나아가 상류층의 속박만 받던 일반 백성들을 위무하는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64]

왕의 질병 치유를 위한 도승도 선정을 보이며 나라의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경덕왕 때의 사례를 보면, 죄수의 사면과 음식의 하사, 그리고 도승이 함께 기술되어 있다.[65] 왕의 施惠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시책들과 도승이 함께 기술되어 있는 것이다. 진성여왕 때의 경우 역시 사면과 도승이 함께 이루어졌다.[66] 백성들을 위무하고 선정을 보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불교의 입장에서 도승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 중국에서 도승은 치정자가 공덕을 쌓기 위해 하던 불사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었다. 황제보살로 불렸던 梁 武帝는 大通 원년(527)에 達磨大師와 만났을 때, 본인은 佛寺를

62) 金德原, 2014「신라 善德王代의 불교정책에 대한 고찰」『新羅史學報』31, pp.14~15.

63) 呂聖九, 2006「신라인의 출가와 도승」『震壇學報』101, pp.81~82.

64) 吉基泰, 2005「百濟 泗沘期의 佛教政策과 度僧」『百濟研究』41, pp.103~105 ; 조원숙, 2010「신라의 度僧 시행」『新羅史學報』19 참조.

65) "夏四月 大赦 賜大酺 度僧一百五十人"(『三國史記』권9, 신라본기 제9, 경덕왕 5년).

66) "王不豫 録囚徒 赦殊死已下 許度僧六十人 王疾乃瘳"(『三國史記』권11, 신라본기 제1, 진성왕 2년).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8/18 12:59(KST)

조영하고 경전을 서사하였으며 승려들을 득도시켰는데 어떤 공덕이 있는지 묻는다.[67] 여기에서 양 무제는 공덕이 쌓일 것을 기대하며 도승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승려들 역시 도승을 공덕 쌓기와 연결시켜 생각하고 있었다. 貞觀 22년(648)에 당 태종이 당시 칭송을 받던 蘇州의 道恭法師와 常州의 慧宣法師를 불러 대화를 나누었다. 대화 과정에서 공덕을 심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이익이 많겠냐고 묻자 법사가 대답하기를 도승을 하는 것이 최고라고 하였다. 미혹에 빠져 있는 중생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法을 알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 법을 넓히는 사람이 승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68] 승려는 불법을 널리 퍼뜨리는 역할을 하므로 승려들의 출가를 허락하고 보호하는 일이 공덕을 쌓는 일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허가를 받아야 공인된 출가가 가능했던 당시 사회에서 국왕만이 베풀 수 있는 시혜이자 최상의 공덕이었다. 신라에서의 인식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출가를 허락하여 공덕을 쌓고 그 결과로 병이 낫기를 기원하였던 것이다.

한편 선덕여왕 때에는 도승이 백고좌회 개설과 함께 이루어졌다. 백고좌회와 함께 이루어진 도승인 만큼 도승의 이유 혹은 근거를 소의경전인 『인왕경』에서 찾았을 가능성이 있다. 『인왕경』「受持品」에서는 부처님이 멸도한 후 법이 멸하려고 할 때 반야바라밀을 受持하면 나라가 안녕할 것이라는 내용을 설한다. 나라에 일곱 가지 재난[七難]이 발생할 때[69] 반야바라밀로써 불사를 일으키면 재난이 福德으로 바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미래세에 三寶를 보호하는 국왕이 있으

67) "以梁大通元年達南海(舊云 普通八年者誤 南海廣州)刺史蕭昂表聞 詔入見 上問曰 朕造寺寫經度僧有何功德 師曰 人天小果耳 上曰 何謂大乘功德 師曰 淨智妙明體自空寂 如是功德不於世求"(志磐 撰, 『佛祖統紀』 卷29, 諸宗立教志 第13, 達磨禪宗, T.2035, 291a16~20).

68) "因問 欲樹功德 何最饒益 法師對曰 眾生寢惑 非慧莫啟 慧芽抽殖 法為其資 弘法由人 即度僧為最"(慧立·彦悰 撰, 『大唐大慈恩寺三藏法師傳』 卷7, T.2053, 259a01~04).

69) 七難은 ① 해와 달이 궤도를 잃은 것, ② 28수가 궤도를 잃은 것, ③ 큰 불, ④ 큰 물, ⑤ 큰 바람, ⑥ 가뭄, ⑦ 외적의 침입을 가리킨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8/18 12:59(KST)

면, 大力菩薩들에게 그 나라를 보호하게끔 한다고 설한다.[70] 삼보란 부처님을 가리키는 佛寶, 부처님의 교설을 가리키는 法寶, 그리고 승려와 승가를 가리키는 僧寶의 세 가지이다. 이 가운데 승보를 보호한다는 것은 사찰과 승려에게 여러 가지 특권과 혜택의 부여하며 출가를 권장하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당시 신라 불교계는 나라로부터 허가를 받고 출가를 하는 관도승과 사사로이 승려가 되는 일반승들이 있었다.[71] 관도승들에게는 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혜택이 주어졌을 것이며, 이는 승보 보호의 일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승보를 보호함으로써 왕의 질병이라고 하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왕이 병에 걸렸을 때 이루어진 도승은 단순한 善政의 표상을 넘어서는 치료 방법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

한편 受戒가 치료의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삼국유사』「圓光西學」조에는 원광의 제자인 圓安이 전하는 원광의 일화가 있다. 신라 진평왕이 병이 나서 의원이 치료하여도 낫지 않아 원광을 입궐하도록 청하였다. 별궁에서 深法을 설하고 受戒와 懺悔를 하도록 하였더니 오래지 않아 차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 치료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삼국유사』의 표현에 의하면, 왕이 원광의 머리가 금빛으로 빛나고 몸을 따라 日輪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勝心을 내었다고 한다. 이로 미루어 원광에 대한 신봉과 도타운 믿음 등의 심리적 상태가 병의 치료를 도운 측면이 있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원광이 진평왕에게 베푼 치료법은 강설과 수계, 참회였다. 이때 원광이 어떤 경전에 의거하여 수계를 하였는지는 명확히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梵網經』의 48經戒 중 제39계에서는 병이 들었을 때 이 경과 율을 읽어야 한다고 설하고 있다.[72] 원광이 貴山과 箒項에게 세속오계를 줄 때 불교의

70) 鳩摩羅什 譯, 『佛說仁王般若波羅蜜經』 卷下 「受持品」 第七(T.0245, 832c01~833a18).

71) 呂聖九, 2006 앞의 논문, pp.78~80.

72) "菩薩應為一切眾生講說大乘經律 若疾病國難賊難 父母兄弟和上阿闍梨亡滅之日 及三七日乃至七七日 亦應讀誦講說大乘經律 … 多婬多瞋多愚癡多疾病 皆應讀誦講說此經律"(鳩摩羅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8/18 12:59(KST)

계율 가운데 열 가지 조목으로 된 보살계가 있다는 언급을 하였는데, 이 보살계는 『범망경』의 10重戒를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73] 즉, 원광은 『범망경』의 내용을 알고 있었으며, 이에 의거하여 진평왕의 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경전의 강설과 수계를 베풀었다고 생각된다.

2. 교설의 재해석 및 因緣談

경전에 치병 방법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치병에 활용된 경전들이 있다. 이 경우에는 경전에 설해진 교설 내용을 현실에 맞추어 재해석하여 치병의 근거로 삼았다고 볼 수 있다. 그 사례로 꼽을 수 있는 것이 『維摩詰經』 독경이다.

> E. 法明尼는 백제 사람이다. 사이메이[齊明] 2년에 內臣인 후지와라 가마타리[鎌子連]가 병에 걸려서 눕게 되었는데, 어떤 방법을 써도 낫지 않았다. 법명니가 상주하여 말하기를, "『유마힐경』은 병에 대해 묻는 내용을 통해 大法을 설하고 있습니다. 가마타리를 위해 그 경을 독경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帝가 경전을 독경하도록 조서를 내렸고, 독경이 채 끝나기도 전에 병이 나으니 신하들이 매우 기뻐하였다.[74]

위의 인용문 E에서는 치병을 위해 『유마경』이 사용되고 있다. 『유마경』은 3세기 전반에 支謙이 번역한 『佛說維摩詰經』, 5세기 초에 鳩摩羅什이 번역한 『維摩詰所說經』, 7세기 전반에 玄奘이 번역한 『無垢稱經』의 세 본이 남아 있다. 세 본은 내용상 큰 차이가 없으며, 번역 시기로 보았을 때 후지와라 가마타리의 치

什 譯, 『梵網經』 卷下, T.1484, 1008b10~18).

73) 崔源植, 1999 『新羅菩薩戒思想史硏究』, 民族社, pp.48~49.

74) 『元亨釋書』 권18, 願雜 18-2.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8/18 12:59(KST)

병을 위해 독경한 판본은 지겸 역본 혹은 구마라집 역본으로 생각된다.

『유마경』은 대승불교의 在家主義를 천명하는 경전으로, 재가 신자인 유마힐 거사가 소승불교를 대변하는 부처의 십대 제자를 비판하며 대승의 길로 이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毘耶離城의 유마힐 거사는 대승의 가르침과 방편에 통달해 있었고 주위를 제도하려고 노력하였으며, 모든 부처들에게 칭찬을 받는 인물이었다. 어느 날 그는 방편으로 병이 났다고 하며 그에게 병문안을 오는 사람들에게 몸의 병을 예로 들어가면서 널리 설법을 하였다. 유마힐 거사가 병이 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부처가 10대 제자들을 하나하나 지목하며 문병을 가라고 하는데, 그들이 모두 유마힐에게 부족함을 지적당했던 사연들을 밝히면서 문병 가기를 사양한다. 그 사연들 속에서 유마힐이 폈던 설법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며 그의 불법에 대한 이해의 깊이와 덕을 찬양하고 있다.

부처가 문수사리에게 문병을 가라고 권하였고 이에 응해 문병을 간 문수사리와 유마힐 거사의 대화를 통해 진리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뒷부분의 내용이다. 문병을 간 문수사리는 유마힐 거사에게 왜 병이 났는지에 대한 질문을 한다. 이에 자식이 병에 걸리면 부모도 병에 걸리는 것처럼, 어리석음과 탐심에 의한 병에 걸린 중생들 때문에 본인도 병에 걸렸다고 대답한다. 유마힐 거사는 대승의 자비심으로 중생의 병을 함께 앓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유마힐 거사는 진리를 설하기 위한 방편으로 꾀병을 냈으며, 그 병도 신체적 질병은 아니었다.

경전의 내용을 교의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으로 끌어와 재해석하는 경우는 불교 관계 기사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다. 고려시대의 사례이지만, 고려 인종 18년(1140)에 서울에 가뭄이 들자 妙應大禪師 敎雄에게 日月寺에서 『妙法蓮華經』을 읽으며 기우를 하도록 하였는데 「藥草喩品」의 一地一雨의 비유를 읽게 되자 큰 비가 내렸다고 한다.[75] 「약초유품」은 비를 머금은 구름이 三千大天

75) "庚申歲 京師旱 詔至日月寺主 講妙法蓮花經以祈雨 至講藥草喩品一地一雨之比 大雨"(「妙應大禪師 敎雄墓誌銘」).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8/18 12:59(KST)

世界의 모든 초목을 덮어 생장케 하듯이 여래의 교설이 모든 중생을 덮어 그들을 饒益케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비가 아닌 法雨이지만 중생교화를 위한 여래의 교설과 중생을 요익케 하고자 하는 자비심에 기대어 비를 기원하는 것이다. 법우가 가뭄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실제의 비로 재해석 되는 것이다.[76] 『유마힐경』 독경의 경우도 방편으로 병이 난 유마힐을 실제 질병이 난 것으로 재해석하고, 중생들에게 깨달음을 주며 병을 치유한다는 경전 내용을 실제 환자에게 대입하는 방식으로 치유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연담의 소재로 불경이 치병과 관련되어 등장하는 사례가 『金剛三昧經』의 유포 설화에서 보인다.

> F. 왕비 머리에 종기가 났는데, 의사가 노력해도 효험이 없었다. 왕과 왕자 그리고 신하들이 산천의 영험한 사당에 기도하여 이르지 않은 곳이 없었다. 무당이 "다른 나라에 사람을 보내어 약을 구해야만 이 병이 나을 것입니다."라고 하여, 왕이 사자를 보내 뱃길로 당에 들어가 의술을 구하게 하였다. 남쪽 큰 바다 가운데에 이르렀을 때, 문득 한 노인이 파도를 헤치고 나타나 배 위로 뛰어 올라와서는 사자를 맞아 바다로 들어갔다. 바라보니 궁전이 장엄하고 화려하였다. 용왕을 알현하였는데 이름은 鈐海였다. 사자에게 이르기를, "그대 나라 왕비는 靑帝의 셋째 딸이다. 우리 궁중에는 전부터 『금강삼매경』이 있는데, 두 가지 깨달음[二覺]이 원만히 통하고 보살행을 보여준다. 이제 왕비의 병에 의탁해 增上緣으로 삼아 이 경전을 부촉하여 그 나라에 출현시켜 유포하려고 한다."라고 하였다. 이에 30장 쯤 되는 흩어진 경전을 가져다 주었다. … 용왕이 말하기를, "大安聖者에게 차례대로 엮게 하고, 元曉法師에게 疏를 지어 講釋하도록 하면 왕비의 병은 의심의 여지없이 나을 것이다."라고 하였다.[77]

76) 김수연, 2012 「高麗時代 密敎史 硏究」,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156~157.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8/18 12:59(KST)

앞의 인용문은 『금강삼매경』이 장래되고 원효가 『金剛三昧經論』을 찬술하게 된 인연을 전한다. 일의 발단으로 문무왕비의 머리에 종기가 나서 당에 약을 구하려 사자를 보내는 것이다.[78] 사자가 이 경을 제대로 맞추어 소를 짓고 강설을 하면 왕비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용왕의 전언과 함께 흩어져 순서를 알 수 없는 『금강삼매경』 30장을 용궁에서 받아 왔다. 인용문 뒤에는 왕의 명에 의해 원효가 『금강삼매경』의 소를 지었고, 소가 도둑맞은 위기가 있었으나 새로 略疏를 다시 지어 황룡사에서 강설하였다는 내용이 이어진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왕비의 병은 『금강삼매경』이라는 경전이 세상에 나오고 원효가 이에 대한 주석을 저술하고 강설하도록 만드는 출발점이다. 용왕도 왕비의 병에 의탁해 증상연으로 삼아 경전은 유포하려 한다고 말하고 있다. 증상연이란 일체의 현상이 생기거나 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간접 원인을 가리킨다. 왕비의 병이 『금강삼매경』의 출현, 원효의 주석 저술과 황룡사에서의 강론, 그리고 원효를 배척했던 불교계의 반성 등으로 원효가 신라 불교계의 중요 인물로 주목받게 되는 시발점이 되었던 것이다. 이에 『송고승전』의 찬자인 찬녕도 왕비의 병을 가르침을 일으키는 큰 단서로 삼았다고 평하고 있다.[79] 고려 후기 정안(鄭晏, ?~1251)은 『금강삼매경론』을 간행하면서, 질병을 인연으로 용궁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하며 法界 중생이 질병에 걸리지 않기를 기원하는 발원문을 남긴 것도[80] 이 주석서나 나오게 된

77) 贊寧 撰, 『宋高僧傳』 권4, 唐新羅國黃龍寺元曉傳(T.2061, 730a18~b04).

78) 617년(진평왕 39)~686년(신문왕 6)에 살았던 원효가 활동했던 시기에 왕비를 둘 수 있는 왕은 문무왕과 신문왕이다. 원효는 이 경을 강설한 것을 계기로 중앙에서 활약하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료상 그의 중앙 활약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시점이 문무왕대이다. 따라서 원효가 『金剛三昧經』의 주석서를 저술하고 강설한 시기는 문무왕대로 추정된다(金福順, 2017 「황룡사 강경법회 -신라 강경법회의 유형과 관련하여-」 『韓國史學報』 67, pp.148~149).

79) "良以此經合行世間 復顯大安曉公神異 使夫人之疾為起教之大端者也"(『宋高僧傳』 권4, T.2061, 730b28~29).

80) "重念 此經出自虯宮 發起因於疾病更 願普及法界含生 生生不聞疾病之音 不處胞胎 常遊諸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8/18 12:59(KST)

인연담을 의식하였기 때문이다.

용왕은 흩어져 있는 『금강삼매경』을 대안이 제대로 차례를 맞추어 엮고, 원효가 주석서를 지어 講釋하면 왕비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용궁에서 경전을 가지고 나와 세상에 유포하였다는 인연담으로 역사적 사실과는 다를 수 있으나, 경전 강설이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인식이 드러난다. 실제로 佛菩薩을 醫王이라고도 부르는데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듯이 중생을 제도할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이 약처럼 작용하여 중생들을 번뇌와 윤회의 고통이라는 병에서 구제한다는 것이다. 특히 교설이 질병 치료와 관련된 내용이면 육신에 발생한 질병을 치료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작용하여, 경전 독경과 강설이 치유 방법으로 활용되었다.

V. 맺음말

병에 걸리면 치료를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다.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왜 병이 났는지, 어떻게 해야 낫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고민은 그 사회의 의학 수준과 사유 체계를 반영하기 때문에, 질병관과 치유 방식을 살펴보는 것은 그 사회를 이해하는 창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 고대인의 종교적 질병관과 치유 방식을 통해 고대 사회를 이해해 보고자 하였다.

여러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한국 고대의 질병관은 크게 다섯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으며, 그 가운데 노화로 인한 질병을 제외한 네 가지를 검토하였다. 첫 번째는 기운의 부조화가 이유로 일어나는 질병이다. 이 기운의 구성이나 운행, 조화·부조화 양상 등을 보는 관점에 종교가 개입되는 측면이 있기때문에, 기운의 부조화도 종교적 질병관에 포함된다. 두 번째는 심리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佛淨妙國土爾"(元曉 述, 『金剛三昧經論』 卷下, K.1501, 135a13~16).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8/18 12:59(KST)

질병이다. 심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은 기운의 부조화와도 연결되니, 마음이 흐트러지면 기운도 흐트러지기 때문이다. 마음과 기운을 바로잡고 걱정을 떨쳐버리는 것이 치료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세 번째는 하늘이나 신의 징벌이 나타나는 경우이다. 네 번째는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외부 요인은 원한, 귀신 등 다양하게 나타나며, 질병이 발생하게 된 외부 요인들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치료가 이루어졌다.

이상과 같이 질병관을 유형화한 위에 불교의 치료 방식들을 정리해 보았다. 원시 사회에서 주술사가 의사의 역할을 담당했던 전통이 이어져, 고대 사회에서도 의료 행위에 주술적 치료 방법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치병과 관련된 모방 주술을 행하거나 주문을 외우는 치료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으며, 이러한 주술적 치료를 담당했던 관료인 주금사도 운영되었다. 방위를 보아 吉方으로 환자를 옮겨 치료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둔갑도 활용되었다.

경전의 교설에 의지하여 『약사경』을 讀經하였고 100명의 고승들이 모여 『인왕경』을 강설하는 백고좌회도 왕의 치병을 위해 개설되었다. 백고좌회와 함께 度僧이 이루어져 눈길을 끄는데, 도승은 기본적으로 국왕이 공덕을 쌓는 방법이었다. 아울러 『인왕경』의 교설 내용에도 승보를 보호하라는 내용이 있어, 이 내용에 따라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수계를 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범망경』의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는 방편으로 병이 나 대승법을 펴는 유마힐 거사의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재해석하여, 치병 방법으로 『유마힐경』을 독경한 경우도 있다. 나아가 『금강삼매경론』을 저술하고 강설하면 병이 낫는다는 인연담도 전하고 있다. 신비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주술적 치료 방법이나 장엄하고 격식에 따른 의식을 갖춘 독경, 의례 개설은 치료 효과에 대한 신뢰감을 주었을 것이다. 이는 환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여 치료 효과를 높이는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흔히 종교적 치료 방법은 비과학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고대인들은 그들의 사유체계 안에서 납득할 수 있는 질병 발생 원인을 찾고, 그에 맞추어 나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8/18 12:59(KST)

름의 합리적 근거를 가진 최선의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자 하였다.

논문투고일 : 2021.04.22. 심사개시일 : 2021.05.12. 심사완료일 : 2021.06.02.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8/18 12:59(KST)

참고문헌

『高麗史』, 『高麗史節要』, 『唐六典』, 『東文選』, 『三國史記』, 『三國遺事』, 『世宗實錄』, 『宋高僧傳』, 『元亨釋書』, 『日本書紀』, 『海東高僧傳』

鳩摩羅什 譯, 『佛說仁王般若波羅蜜經』
鳩摩羅什 譯, 『梵網經』
帛尸梨蜜多羅 譯, 『佛說灌頂經』
元曉 述, 『金剛三昧經論』

高翊晋, 1989 『韓國古代佛教思想史』, 동국대학교 출판부
金斗鍾, 1966 『韓國醫學史』, 探求堂
김일권, 2008 『우리 역사의 하늘과 별자리』, 고즈윈
孫弘烈, 2013 『韓國醫學史硏究 -制度史를 中心으로-』, 修書院
崔源植, 1999 『新羅菩薩戒思想史硏究』, 民族社

吉基泰, 2005 「百濟 泗沘期의 佛教政策과 度僧」 『百濟硏究』 41
吉基泰, 2006 「百濟의 呪噤師와 藥師信仰」 『新羅史學報』 6
金德原, 2014 「신라 善德王代의 불교정책에 대한 고찰」 『新羅史學報』 31
김복순, 2010 「신라의 백고좌법회」 『新羅文化』 36
金福順, 2017 「황룡사 강경법회 -신라 강경법회의 유형과 관련하여-」 『韓國史學報』 67
金相範, 2014 「醫術과 呪術 -唐代 醫療知識의 확산과 禁巫措置」 『中國古中世史硏究』 31
金相鉉, 1994 「輯逸金光明經疏 -金光明最勝王經玄樞 所印 元曉疏의 輯編」 『東洋學』 24
金相鉉, 2000 「輯逸金光明最勝王經憬興疏」 『新羅文化』 17·18
김성수, 2020 「한국 전근대의료사의 연구동향과 전망(2010~2019) -분야의 확장과 연구 방법의 다양화-」 『의사학』 29-2
김수연, 2012 「高麗時代 密教史 硏究」,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수태, 2009 「백제 의자왕대의 불교 -경흥을 중심으로-」 『百濟文化』 41
김연민, 2012 「密本의 『藥師經』 신앙과 그 의미」 『한국고대사연구』 65
김연민, 2019 「신라 하대 다라니신앙과 그 의미」 『한국고대사탐구』 33
金昌錫. 2010 「창녕 화왕산성 蓮池 출토 木簡의 내용과 용도」 『목간과 문자』 5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8/18 12:59(KST)

노중국, 2011 「『삼국유사』 惠通降龍조의 검토」 『신라문화제 학술발표논문집』 32
류성민, 2004 「종교적 질병 치유의 사회·문화적 의미 -한국 종교의 치병 의례를 중심으로-」 『종교연구』 35
박경안, 2006 「고려인들의 다양한 금기와 질병을 대하는 태도」 『역사와 현실』 59
박찬흥, 2011 「『三國遺事』 感通篇 '憬興遇聖'조를 통해 본 憬興의 생애」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32
신동원, 2010 「한국 전근대 의학사 연구 동향」 『의사학』 19-1
呂聖九, 2006 「신라인의 출가와 도승」 『震壇學報』 101
여인석, 1996 「삼국시대의 불교교학과 치병활동의 관계」 『醫史學』 5-2
여인석·박형우, 1995 「우리나라 고대 불교의학의 한 단면 -원효의 경우-」 『醫史學』 4-2
오재근·정종욱·신동원, 2016 「신라 승려의 『금광명경』 「제병품」 주석을 통해 살펴본 한국 고대 불교의학」 『의사학』 25-3
李符永, 1981 「原始的 疾病觀의 象徵性 -주로 『三國遺事』와 『三國史記』를 中心으로-」 『한국과학사학회지』 3-1
李昇炫, 2020 「金忠恭의 疾病과 龍齒湯」 『동국사학』 68
이현숙, 2000 「신라 애장왕대 唐 의학서 『廣利方』의 도입과 그 의의(2)」 『東洋古典硏究』 14
이현숙, 2009 「질병, 치료, 종교 -한국 고대 불교의학-」 『韓國思想과 文化』 48
이현숙, 2019 「치유 공간으로서의 한국고대 사찰 -신라 흥륜사를 중심으로-」 『新羅史學報』 46
이혜영, 2004 「新羅人과 古代 中國人의 疾病觀 비교 연구」 『典農史論』 10
장인성, 2000 「고대 한국인의 질병관과 의료」 『한국고대사연구』 20
정병삼, 2013 「신라 약사신앙의 성격 -교리적 해석과 신앙활동-」 『불교연구』 39
정진희, 2015 「羅末麗初 熾盛光如來 信仰과 圖像의 傳來 -『高麗史』 기사를 중심으로-」 『韓國古代史探究』 20
조원숙, 2010 「신라의 度僧 시행」 『新羅史學報』 19
최병철, 2001 「高麗時代의 醫療와 佛敎」 『역사와 실학』 21
한명숙, 2017 「元曉 『金光明經疏』 輯逸의 현황과 그에 대한 비판적 검토(Ⅰ)」 『보조사상』 49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8/18 12:59(KST)

Abstract

Viewpoints of Diseases and Buddhist Treatment Methods in Ancient Korea

Kim, Soo-Youn

Contemplation over the causes and treatment methods of diseases reflects a society's medicine level and perspective, which means that one of windows into the understanding of a society is to examine its viewpoints of illness and treatment methods. This study thus set out to understand the ancient society of Korea by examining ancient people's viewpoints of diseases and methods to treat them.

When many different materials are put together, it becomes clear that there were four major types of viewpoints of diseases in ancient Korea except for diseases due to old age: the first type includes diseases caused by vitality disharmony. Such diseases depend on the composition, management, and harmony & disharmony patterns of vitality; the second type contains diseases caused by psychological factors. Such diseases are connected to the disharmony of vitality, as well, since vitality will be disrupted when the mind is. Such diseases can be treated by setting the mind and vitality straight and shaking off worries; the third one includes diseases caused by punishment by the Heaven or gods. Such diseases appear in tales about the spread of religion or scriptures; and the final one covers diseases caused by external factors. There are various external causes including resentment and ghosts, and therapies involve the elimination of such external factors as causes of illness.

After classifying the viewpoints of diseases, the investigator arranged religious therapies around Buddhism. Following the tradition of sorcerers serving as doctors in the primitive society, many shamanistic treatment methods were included in medical acts in the ancient society. They would imitate a spell or make an incantation to treat illness. In the ancient society, there was Jugeum-sa(呪噤師) comprised of government officials in charge of such shamanistic treatments. Dungap(遁甲, Eight-Gate Transformation) was also in practice which would predict the progress of illness according to bearings and move patients to a place favorable to their treatment, thus contributing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8/18 12:59(KST)

to therapy.

There were cases of chanting sutras in *Yaksa-gyeong*(藥師經) and *Yumahil-gyeong*(維摩詰經). Baekgojwa-hoi(百高座會), in which 100 high priests would gather and give a lecture on *Inwang-gyeong*(仁王經), was held to treat the illness of a king or queen. It is noteworthy that Baekgojwa-hoi was accompanied by a measure to allow Buddhist monks to enter priesthood, and it was one the basic ways that kings accumulated their Buddhist merits. The teachings of Inwang-gyeong also include a section about the protection of Seungbo(僧寶, Sangha), which suggests that these acts of therapy were part of efforts to protect the state.

Key words : Viewpoint of Disease, Treatment, Dharani, Baekgojwa-hoi, *Yaksa-gyeong*(藥師經), *Inwang-gyeong*(仁王經)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8/18 12:59(KST)